

2008 새해설계 ⑩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 지부장 이중희

“포천문화예술 발전의 中心에 文人이 있어야”

1개월에 1회 만날 수 있는 場이 있으니 활용해야

“문인은 그 시대와 그 땅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등불입니다. 문인들의 펜 끝이 무너져 있을 때 그 나라와 그 시대의 혼란과 암흑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부조리는 기승을 부리고 국민의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문인들의 펜 끝이 날카로울 때 그 시대와 그 나라의 밝음이 있고 정의와 평화가 도도한 물결을 이루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꽃을 피우고 국민들은 힘을 얻고 평화를 누립니다. 그만큼 그 시대와 그 땅의 문인들의 책임 또한 막중한 것입니다. 20세기 전반기는 군사력이 그 나라의 힘의 척도였고 20세기 후반기는 경제력이 그 나라의 힘의 척도였다면 21세기는 문화가 그 나라의 힘의 척도인 것입니다. 왜 문화일까요? 우리의 지난 어두웠던 세월들을 문화가 없는 정치의 모습, 문화가 없는 경제의 모습을 교과서처럼 잘 보여준 시기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는 정치나 경제에 기생하는 사치품이 아니라 문화는 정치와 경제를 살리는 원천입니다. 모든 훌륭한 정치, 훌륭한 경제는 반드시 아름다운 문화의 꽃으로 탄생되고 아름답게 피워집니다. 문화가 시든 곳에서는 정치도 시들고, 경제도 시들고, 그 나라도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포천시도 새로운 문화의 연대를 이루어 문화의 꽃을 피워야 할 때입니다. 그 문화의 중추적 역할은 우리 문인들의 몫입니다. 우리 문인협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주축은 문인들의 가슴과 펜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 제4대 지부장으로 4월4일 취임한 이중희(사)지부장의 취임사 요지다.

이 지부장은 2008년2월22일 총회에서 선출되어 3년의 임기를 시작했으며 지부장으로 출마하게 된 것은 해보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첫째, 남북문인교류행사를 마련하고 싶다. 서로 만나 정을 나누고 시낭송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싶다. 북한의 시인도 초청하는 행사도 마련하고 싶다. 현재는 남북한이 냉각기에 있지만 임기중에 꼭 시도하고 싶다.

둘째, 한국문인협회에서도 포천 문인들의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 일을 꼭 하고 싶다. 후배들중

에서 유능한 문인이 나와서 한국문인협회와 정감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마련하겠다.

셋째, 매월 등산을 통해 회원 모두가 함께 나누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등산을 통해 운동도 되고 시낭송의 시간도 가지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밖에도 이 지부장은 포천사랑백일장의 명칭을 오성고 한음백일장으로 변경하여 포천사회의 전통과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변지역인 의정부시,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가평군 등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 서로의 작품교환의 장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지부장은 또 지난해 제정된 포천문학상에 대해 포천문화상 심사위원회를 조직해 엄정한 심사를 통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예산은 보결선거가 끝나면 새로 선출되는 시장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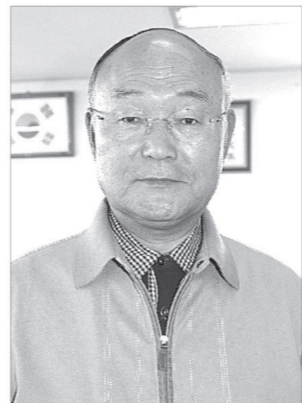
이 지부장은 회원들에게 당부

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문인협회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바라며 뒤에서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1개월에 1회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는데 그 장에 나오지 않고 뒤에서 다른 말을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포천문예대학에 대해 이 지부장은 “바둑에 있어서 정식으로 배운 사람한테는 당해내지 못하듯이 글을 쓰는 것도 정식으로 배워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니 모두 참가하여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신문사가 그동안 포천문인협회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홍보와 더불어 좋은 기사를 게재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포천사회의 꼭 필요한 문인협회가 되고 문인협회의 활동을 꼭 보도해주는 포천신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고경명 : 1533년(중종 28)~1592년(선조 25). 전남 장흥인. 본관은 장흥(長興). 호는 재봉(齎峰). 대사간(大司諫) 맹영(孟英)의 자.

1552년(명종 7) 장원으로 진사(進士)가 되고 이어서 1558년(명종 13) 문과에 장원급제한 수재다. 정언(正言), 전적, 호조정랑, 홍문관 교리를 역임하면서 1563년(명종 18) 인순왕후(仁順王后 명종왕비)의 외숙인 이조판서 이양이 권세를 믿고 정횡(專橫)하자 이를 탄핵하는 데 참여하였다가 울산군수로 좌천되었다가 파직되었다.

1581년(선조 14) 영암군수로 다시 기용. 명나라에 서장관으로 가서 문장과 시명(詩名)을 떨쳐 국위를 선양하였다. 1585년(선조 18) 정3품 군자감에 승진하자 시가하는 무리가 있어 사임함. 1590년(선조 23)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차, 승정원 판교. 이어서 동래부사가 되어 청백하며 선정을 베풀어 백성이 칭송. 1591년(선조 24) 광국원종(光國原從)에 녹훈됨. 1591년(선조 24) 좌의정 정철이 모함을 받아 조정에서 축출되자 그의 일당이라고 하는 자가 그의 관직을 버리고 광주(光州)로 낙향.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병이 파죽지세로 문경새재를 넘어 한양까지 점령하자 국왕이 파천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풍곡. 아들 종후(從厚) 인후(因厚)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나주(羅州)의 의병장 김천일(金千鎰)과 함께 활동하였다. 모인 의병이 수천에 이르렀다. 전주(全州)에서 군사를 정돈하여 북으로 올라가

韓國의 선비정신 · 99

조선조에 의병장이 가장 많이 배출한 고경명(高敬命) 가문



리효종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서 노성(魯城)으로 향하다가 금산(鎭山)에서 중봉(重峯) 조연(趙憲)선생의 의병부대를 타격하여 많은 희생자(칠백의사)를 내게 한 왜병이 내려온다함으로 이를 맞아 싸워 원수를 갚고자 하니 북수성에 사기가 충천하였다. 이때 고경명의 나이 60이었다. 이 당시 고경명이 수천명의 의병을 소집하였던 명문장을 마상격문(馬上敍文)이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에 전하고 있다. 적을 맞아 분투하였으나 종과부적으로 고경명과 작은 아들 인후가 전사하였다. 큰 아들 고종후는 이때 같이 죽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겼다. 너는 살아서 집안을 이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1년 뒤 진주성(晉州城) 싸움에 참가하여 최경희, 김천일, 숙부 고경형과 함께 분투하다가 전사하였다. 장자 종후는 1577년에, 차자 인후는 1589년에 문과에 급제한 수재들이었다.

제봉 고경명은 고매한 인격에 풍자영위(風姿英偉)하고 식량광신(識量宏深)하며 영욕(榮辱)을 초월하였다.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고 시호는 충렬(忠烈).

금산의 성곡서원(星谷書院), 종용사(從容祠), 순창의 화산서원(華山書院), 광주(廣州)의 포충사(褒忠祠)에 제향됨.

고경명 일가족 4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초개같이 버린 선비로서 참으로 장하다. 이같은 선비정신이 있었기에 조선왕조 500년 사적이 보전된 것이다.

고종후(高從厚)의 시호는 효렬(孝烈), 광주 포충사(褒忠祠)와 진주 충민사(忠愍祠)에 제향됨.

고인후(高因厚)의 시호는 의렬(毅烈), 광주 포충사와 금산 종용사(從容祠)에 제향됨.

구한말 일본이 침략해오니 이 집안은 또 의병활동을 하였다.

고경명의 후손 낙천 고광순(鹿川 高光洵)은 1848~1907)은 전라북도에서 의병활동의 선구적 활동을 한 의병장이었다.

연곡사(燕谷寺) 전후에서 13명의 동지들과 함께 순절하였는데 이때 낙천의 나이 60세였는데, 임진왜란때 순절한 고경명 선조 역시 60세였다. 낙천이 전사하자 그 고광순(高光秀 1875~1945), 고광문(高光文 1864~1944)이 의병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천석재산을 의병활동에 바쳤고 해방될 때까지 금강산에 숨어서 지내야하는 고초를 겪었다.

이외에도 고재량(高濟亮), 고광훈(高光勳), 고문석(高文錫), 고경덕(高敬德), 고광채(高光彩), 고광명(高光明) 등 근친들이 호남일대에서 의병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조선조에서 의병장을 가장 많이 배출한 충절가문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왔다.

뮤지컬 이야기

<이스터 퍼레이드(Easter Parade, 1948)>와 프레드 아스테어(Fred Astaire, 1911~1987)의 화려한 재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위치와 자리를 만날 때가 있다. 그렇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파멸을 경험하기도 한다. 반면에 극적인 전환점에서 반전을 이루어 성공하거나 재기를 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저기에는 운이 따르는 확률도 적지 않다. 연극이나 영화계는 더욱 그러하다. 연극배우나 영화배우도 늘 자신에게 맞는 배우가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배우들은 적어도 한 번은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연기 인생에 전환점을 맞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배우들 중에서도 자기가 출연한 작품이 실패하여 은퇴를 결심하거나 은둔을 한 사례가 많이 있다. 반면에 작품이 대박나 차선책이었던 무명 배우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는 뒷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하루 연습을 안 나왔다고 배역이 교체되었다고 그 작품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자 그 역을 대신한 배우는 연기상을 거머쥐며 스타덤에 올랐던 예도 있다. 오늘날 연극뿐만 아니라 영화와 TV에서 탄탄한 연기력과 개성 있는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김강수씨도 예외는 아니다. 자신이 선택했던 몇 편의 영화들이 흥행에서든 작품상에서든 실패를 거두게 되자 이제는 영화 선택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다. 영화보다는 TV가 자신의 자리인 것

일까? 반면에 백윤식씨는 최근 영화계에 없어서는 안 될 배우로 자리 잡으며 TV에서는 결코 누리기 못한 대중적인 인기를 뒤늦게 영화계에서 누리고 있다. 이처럼 연기인생의 전환점과 자신에게 적합한 자리이야기는 1940년대 뮤지컬 대표작 중에 하나인 <이스터 퍼레이드(Easter Parade, 1948)>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스터 퍼레이드(Easter Parade)>는 전형적인 뮤지컬 코미디이다. 남자 주인공 돈 휴즈(Don Hewes)가 자신을 버린 파트너 여배우에게 복수를 하기위해 무모하게 신인 여배우를 파트너로 선택해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에는 성공과 사랑을 함께 얻는다는 내용이다. 할리우드가 만든 가장 행복한 뮤지컬이라는 슬로건처럼 즐거운 영화이며 “어 펠러 워드 언 엄브렐라(A Fella with an Umbrella)”, “어 컵 오브 스웰스(A Cup of Swells)”, “이스터 퍼레이드(Easter Parade)” 등 어빙 벌린의 주옥같은 노래 17곡도 즐길 수 있다. 국내에 DVD로 출시되어 있다.

세계 뮤지컬 역사를 돌아볼 때 프레드 아스테어(Fred Astaire, 1899~1987)가 20세기 최고의 뮤지컬 배우라고 부르기에 이견을 알았다. 필자가 유년시절에 내 고향 포천에서 들은 얘기는 더 재미가 있다. “옛날, 어느 선비가 여우고개를 넘는데 꼬리 아홉 달린 여우가 무덤을 파고 백골을 머리에서 쓰러니 세 번 재주를 팔딱팔딱 뛰여 넘으니 금방 예쁜 소녀(처녀)로 둔갑을 하였다. 또, 차들로 백골을 박박 끊으니 예쁜 처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예쁜 처녀로 변신한 여우는 빠른 걸음으로 남을 찾아가서 여우고개를 넘어 옛 마을을 잔치하는 집으로 뛰어 갔다. 잔치 집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

누구나 프레드와 공연해야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만큼 1920년대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프레드의 뮤지컬 배우로서의 발자취는 전설로 남아있다. 그런 프레드도 그의 뮤지컬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있었다. 1930년대에 세기의 송 앤 덴스(Song & Dance) 파트너 진저 로저스(Ginger Rogers)와 함께 할리우드 뮤지컬의 맨스 파르너십의 전형을 만든 프레드는 1940년대 들어서도 메이저 영화사들에게 돈을 벌어드리는 뱅커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방가르드적이며 초현실주의적 색채를 가미한 <요란다와 도둑(Yolanda and the Thief, MGM)>의 실패와 함께 함께 청나 흥격을 받은 프레드는 <블루 스카이(Blue Skies, 1946)> 촬영장에서 은퇴를 결정한다. 안배주 의지였던 프레드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할리우드는 자신의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자리는 결국 뮤지컬이었다. 은퇴 드라마에 빠지기도 했으며 1947년에는 자신의 댄스 스튜디오를 만들어 사업가로 변신하기도 했지만 정말 우연한 기회에 1948년작 <이스터 퍼레이드(Easter Parade)>에 출연하여 화려한 재기를 하게 된 것이다.

프레드 아스테어의 은퇴이후 뮤지컬계에 독보적인 스타로 군림해온 남재우씨는 진 켈리(Gene Kelly)였다. 우리에게 <사랑은 비를 타고(Singing in the Rain)>로 유

명한 진 켈리가 <이스터 퍼레이드(Easter Parade)>를 찍기 직전에 배우계임을 하다 심하게 발목부상을 당했다. 이미 촬영은 시작되었고 대역배우를 찾던 중에 프레드의 재능만이 진 켈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한 MGM 영화사는 시나리오상의 주인공 백역 스타인인 프레드에게 맞추며 많은 부분 각색을 감행했다. 모험이기도 했지만 상대 여배우는 대스타 주디 갈런드였으며 MGM 영화사의 기획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스터 퍼레이드(Easter Parade)>는 대단한 흥행기록을 세우며 프레드에게는 향후 30여년 넘게 탄탄하게 배우로 활동할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지만 유명한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과 함께 주연하여 화제가 되었던 <하니 페이스(Funny Face, 1957)>를 끝으로 1957년 이후에 다시는 뮤지컬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핵전쟁 드라마 <온 더 비치(On the Beach, 1959)>의 출연을 계기로 드라마 연기에 집중하면서 제2의 연기 인생이 시작되었고 1974년에는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한 <타워링(The Towering Inferno)>으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니 신흠방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점잖은 선비라도 여는 참을 수 없어 마당 지게 옆에 있던 작대기를 높이 들고 쫓아가 처녀로 둔갑한 여우의 목을 내리 쳤다. “에게! 이 못된 여우야, 네 어찌 여우가 처녀로 둔갑하여 잘 대접받았으면 되었지, 어찌 신랑 안으로 들어가 해코지를 하러 드느냐? 내 작대기(봉둥이)맛을 보아라.” 청진벽력과 같은 고향 소리와 함께 내리친 작대기(봉둥이)는 처녀로 둔갑한 여우의 목을 치니 처녀는 네 활개를 펼치고 마방에 떨어져 죽었는데 꼬리 아홉 달린 백년 묵은 여우였다.

“어부터 도를 깨닫는 선비는 귀신(잡귀)이나 도깨비, 변신(둔갑)한 여우도 알아볼 수 있어 신랑의 신랑과 신부를 살렸다고 기뻐 하였다 한다. 재미있는 전래 동화로 내 고향에 전한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예/술/칼/럼

지금 송우리 장터에는 비가 내린다

송우리에는 지금 우시장이 없다. 그 자리에는 불빛이 먼저 나와 개발 새발이 출반주 한다.해가 서신에 떨어지면 색깔 다른 물과 얼음들이 분주히 오간다. 거기에는 살아가는 목청들이 준비하게 들락거리고 하늘 저쪽에서 새떼들이 넘어지기도 하며 짙은 숲이 넘어져서 알록 짙은 오름에 섞여 하수구 밑으로 연신 빠져나간다. 하나 남은 딱지에서 피어오르는 꽃 냄새와 하얀 김이 군침을 돌게 하는 우물가 사철 나무 아래서 뒷물하던 분이는 영보이지 않는다. 무성한 소문에 의하면 땅을 팔아먹은 사람은 서울로 갔고 땅 번지를 은행에 맡긴 화장품 가게의 아줌마는 새까만 기미를 토닥거리며 낯날로 새참을 즐기고 있다. 그래도 송우리의 뒷골목은 비를 받아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정처없는 공약이 장바닥에 은뿔 뿌려진들 어는 철에 새색이 돌아나 사람과 정답게 살겠는가.

연어는 고향을 떠나 떠나면 향해를 마치고 되돌아온다는데 송우리 아무개는 정치웃을 갈아 입고 고향을 찾은 초등학교 동창놈의 그림자만 기웃거리고 있으니 공연히 한심스럽다. 그래도 시장터 가까이에는 다른 나라 언어들이 제살을 뜯어가며 부화를 한다. 그들에게 돌을 던져도

충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천에서 흘러가는 물이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먼저 걱정할 일이다. 밀레니엄 영문자가 온 몸을 태운다지만 어디 대중탕의 찬물이 빨리 데워 지겠는가. 하루살이가 날파리 옆구리를 잡아 먹은들, 꽃순이가 가슴팍에 지페 몇 개를 찔러 넣은들 만든 오징어 짬뽕은 살아서 한수구 밑으로 연신 빠져나간다. 하나 남은 딱지에서 피어오르는 꽃 냄새와 하얀 김이 군침을 돌게 하는 우물가 사철 나무 아래서 뒷물하던 분이는 영보이지 않는다. 무성한 소문에 의하면 땅을 팔아먹은 사람은 서울로 갔고 땅 번지를 은행에 맡긴 화장품 가게의 아줌마는 새까만 기미를 토닥거리며 낯날로 새참을 즐기고 있다. 그래도 송우리의 뒷골목은 비를 받아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정처없는 공약이 장바닥에 은뿔 뿌려진들 어는 철에 새색이 돌아나 사람과 정답게 살겠는가.

연어는 고향을 떠나 떠나면 향해를 마치고 되돌아온다는데 송우리 아무개는 정치웃을 갈아 입고 고향을 찾은 초등학교 동창놈의 그림자만 기웃거리고 있으니 공연히 한심스럽다. 그래도 시장터 가까이에는 다른 나라 언어들이 제살을 뜯어가며 부화를 한다. 그들에게 돌을 던져도

메리칸 제프가 뽕뽕을 밀어내고 주인 행세를 하니 어이된 영문인지 한글인지 분간이 안가는 일이다. 아직도 한반도의 흙이 끈질기고 특성이 선 문화인 줄을 모른다. 그들은 나쁜 바보다. 먹거리 문화도 문화인지라 21세기는 ‘문화의 충돌시대’라더니 그 꼬리를 꼬고 달려온 영문과 문화가 우리의 피와 살이 언제 쇠고 먹고 싶었다. 우리네 대학까지 가르친 게 누군가. 아버지의 뺨기와 소가 아니었던가.

“소야, 소야, 한우야!”

“대관령도 우리 땅이고, 김해 평야도 우리 땅이지. 독도는 당연히 우리 섬이고 그렇지!”

“문화야, 예술야!”

“산이 좋아, 물이 좋아, 사람이 좋아.”

“강이 맑고 바다가 깊은 데로 우리 토틸 뭉쳐 태극기로 싶어 날라 오대양 육대주에 우리나라 꽃을 심자!”

그대 송우리 장터는 내일도 불뼉을 먹고 힘차게 일어설 일이다.



안익수 시인 제3의문화주간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33)

「여우고개」이야기

몇 년 전 포천을 사랑하는 어느 등산가 한 분이 필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여우고개를 연인고개라고 개명(改名)하고 고개 이름을 쓴 표석을 세우고 음식점 이름으로까지 운영하여 시골에 맞지 않게 시정하여 주십시오.”

고마운 애청심을 어찌 깔음까 궁리 끝에 문화원 당국과 상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생각나지 않아 당시, 이진호 군수님께 각고개나 명승지 이름의 표석을 잘 살펴볼 것을 건의하는 선에서 끝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여우고개 이야기를 찾아보니, 궁예와 왕건의 군대가 접 전시, 여우고개를

깃들듯 옛보아서 「여우고개」라는 설과 여우가 자주 나타나는 고개여서 「여우고개」라는 설이 있음을 알았다. 필자가 유년시절에 내 고향 포천에서 들은 얘기는 더 재미가 있다. “옛날, 어느 선비가 여우고개를 넘는데 꼬리 아홉 달린 여우가 무덤을 파고 백골을 머리에서 쓰러니 세 번 재주를 팔딱팔딱 뛰여 넘으니 금방 예쁜 소녀(처녀)로 둔갑을 하였다. 또, 차들로 백골을 박박 끊으니 예쁜 처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예쁜 처녀로 변신한 여우는 빠른 걸음으로 남을 찾아가서 여우고개를 넘어 옛 마을을 잔치하는 집으로 뛰어 갔다. 잔치 집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

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랍다 놀랍고말고, 사흘 전 죽은 색시의 친구가 살아서 친구 혼인식에 오다니.....놀라워” 여우가 변신한 처녀를 볼려고 마을 사람 들은 큰 소리로 떠들었다. 죽은 색시의 친구가 친구의 결혼식을 보고와 찾아 온 기적 같은 일이 전개되었으니 어찌 놀라지 않았을 것인가? 이를 지켜 본, 점잖은 선비는 꼭 참고 어찌 할 바를 몰라 떨고 바라다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칩사 대접을 받은 색시(소녀)로 둔갑한 여우는 밤이 되자 신랑 신부가 신방을 꾸미고 단꿈을 꾸려는 순간 공둥이를 좌우로 살레살레 흔들며 눈웃음을 치며

초대 漢詩 參拜彰義祠 (참배창의사)



李曉鐘 포천한시협회 회장

耘翁追慕敬虔筵(운옹추묘경전연) 參拜淸琴像肅然(참배淸琴像肅然) 운곡선생을 추모하는 경건한 자리에 참배하는 선비들의 태도가 숙연하다

義氣淸風巢夫潔(의기淸風巢夫潔) 丹心貞節伯夷壘(단심정절백이전) 의기청풍은 소부와 같이 깨끗하고 단심정절은 백이와 같이 곧으셨네

文章卓越千秋範(문장탁월천추범) 道德巖巖萬古賢(도덕巖巖萬古賢) 문장은 탁월하여 천추의 모범이 되시고 도덕은 차아하시어 만고의 현인이셨네

懿蹟輝煌垂竹帛(의적휘황수죽帛) 奉安彰廟永收傳(봉안창묘영유전) 의적은 휘황하여 죽백에 드리워지고 창묘시에 봉안하여 영원히 전하리라